

與 내주중 30~40명 집단탈당

열린우리당 일부 신당과 의원들이 이른바 내주계 집단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시되면서 초유의 집권 여당의 분당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여당 의원 3~4명도 집단 탈당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우리당 신당과 의원들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중심의 리모델링 성격인 전당대회에 대한 무용론이 확산되면서 집단 탈당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 전당대회를 치러봤자 떠난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고 정계 개편을 위한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에 당의 조직기반 약화로 전대에 참여할 대의원의 숫자가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조차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강경 신당과의 집단 탈당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주께 탈당이 나서겠다는 신당과 모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하게 되면 '도로 열린당'으로 가

김한길·강봉균 중심...광주·전남 3~4명 동참

"전대 치러봤자 시간 허비"...사수와 강력 비난

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틀을 깨고 새로운 지평에서 교섭단체를 만들고 국민경선제를 통해 대선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집단 탈당이 이뤄진다면 규모는 30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다. 우선 지난달 30일로 임기를 마친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 등이 중심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김한길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던 노홍래, 최용규, 조일현, 장경수, 최성 의원 등이 행동을 함께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원내대표 등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기념하는 부부동반 모임을 갖고 당 진로에 대한 의견

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정배 의원과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제종길 의원 등 일부 의원이 탈당 대열에 참여할 전망이며, 강봉균 전 정책위의장과 교감해 온 박상돈 의원 등도 탈당에 나설 전망이다. 정동영계의 전병현, 김낙수, 최규식 의원과 호남권 중진 이강래 의원, 재선그룹의 정장선, 이종걸, 조배숙 의원 등도 집단탈당 대열에 합류할 인사들로 분류된다.

총청에 지역구를 둔 홍재형, 박병석, 이용희, 변재일 의원 등 9명의 의원들도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탈당 문제를 논의해 주목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희망 21' 대표

를 맡고 있는 양형일 의원과 주승용, 우윤근, 유선호 의원 등이 집단 탈당에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김태희 의원은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탈당 시기는 2·14 전대가 열리기 이전인 오는 4일부터 10일 사이가 유력하다. 일단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5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세를 규합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일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전대 직전에 탈당을 결행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적어도 4~5일 정도의 시차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지역 모 의원은 "이미 집단 탈당은 구체화 됐으며 아마 5일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 의원은 적어도 30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태 의장 등 우리당 지도부와 중도파 중진그룹, 사수와 의원들은 강경 신당파를 강력히 비난하며 탈당을 만류하는 한편 금주 내 새 지도부 인선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전대 절차를 계속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의원 선출

열린우리당의 다섯번째 원내대표에 장영달(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장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체 재직의원 135명 중 112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8표를 얻어 32표를 얻은 이미경 의원을 제치고 원내대표에 선임됐다.

장 의원은 당선 후 취임 소감에서 "12월에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은 비극"이라며 "우리가 부족해서 여론이 낮아져 있는 것이지 한나라당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출발하는 심정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영달 의원은 지난 14대 국회 때부터 전북 전주 지역에서 내리 4선의 경력을 쌓은 재야파 중진의원.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 위반, 5·3 인제개헌 운동 등과 관련돼 3차례에 걸친 구속과 8년여에 걸친 옥고를 치르는 등 반독재 민주화투쟁에 앞장섰다.

투옥과 재야 활동 경력에서 풍기는 강성 이미지와 달리 소탈하고 두루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 가족으로는 부인 김혜식(54)씨와 2남.

▲전북 남원(58) ▲국민대 ▲민주화 운동청년연합 초대부위원장 ▲국민회의 수석부총무 ▲16대 국회 국방위원장 ▲우리당 상임중앙위원 및 자문위원단장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盧대통령 인기 없는 것 빼고 잘못된 것 없다"

도올 김용옥교수

한동안 외딴 정치적인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던 도올 김용옥(사진) 교수가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고 해서 그가 우리 시대의 잘못을 리더한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3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EBS 요한복을 원전 감독 강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차기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다"며 발언을 열었다.

그는 "정치적으로 밝힐 의견은 없느냐"는 질문에 "사실 지난 4개월간 정국 돌아가는 것을 좇지 못했다"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없을 뿐이지 우리 역사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제 노 대통령은 임기 5년이 끝나간다. 지난 5년에서 긍정적 측면을 취하고 이후 차기 대통령으로 좋은 사람을 뽑으면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 사회는 그간 대통령의 권위가 많이 낮아질 필요가 있었는데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권이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을 너무 각박하게 평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며 "지난 5년간 우리 역사는 분명히 리모델링이었다. 민주사회로 가는 길에 그리 크게 불행한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시 전국체전 D-250

'문화'에 액센트, 예술체전으로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는 체육과 예술이 만나는 시민 한마당 체전으로 치러진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전국체전 D-250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88회 전국체전 기간에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를 병행하는 등 예술체전으로 치를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체전 기간에 디자인 비엔날레를 개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이고 도시미관이나 체육시설 등도 예술성을 최대한 살려 꾸미기로 했다. 트로피와 시상대 등도 예향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관광산업과 자동차, 전자산업 등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해가는 광주의 새로운 모습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30여명이 투입될 개·폐회식은 문화수도와 빛, 첨단산업 도시를 강조하는 등 광주 정체성을 그대로 담는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행사로 치를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민주와 인권·평화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15만명으로 범시민지원단을 구성,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체전으로 치르기로 했다. 성화 채화도 기존 경기 강화도 마니산과 함께 무등산과 국립 5·18 묘지에서 동시 채화한 뒤 합화(合火), 민주성지의 이미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와 임원 등 3만여명이 참가하며, 대회운영비 207억원과 경기장 시설비 291억원 등 498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지난달 31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D-250일 행사에서 박광대 광주시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과 나무석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뒷줄 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광주시청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함께 엠블렘기 게양에 맞춰 박수를 치고 있다. /위적량기자 jrwi@kwangju.co.kr

"민주 의원들 당적 버리고 신당 참여해야"

김효석 원내대표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제3지대에서의 통합신당 창당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당적을 버리고 통합신당 주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이후 통합신당 창당 움직임이 순조롭게 진행, 신당 주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민주당 의원들도 당적을 버리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이 통합신당 창당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과 의원의 수가 20명이 넘는다면 민주당이 여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통합신당 창당에 나서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신당 주비위원회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탈당과 의원들이 구성된 원내교섭단체와 민주당의 당대당 통합을 적극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적을 버리는 문제는 당대의 승인 및 의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 여당 강경 신당파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도 탈당에 나서 통합신당 창당에 나서자는 요구를 하고 있으나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광주광역시</p> <p>1068-7557</p> <p>119-7610</p> <p>799,000</p> <p>770,000</p> <p>399,000</p> <p>850,000</p> <p>279,000</p>	<p>제88회 전국체육대회</p> <p>2007.10.10</p> <p>158,000</p> <p>421,000</p> <p>399,000</p> <p>718,000</p> <p>399,000</p> <p>229,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	<p>신당</p> <p>1,000,000</p> <p>1,500,000</p> <p>2,000,000</p> <p>2,500,000</p> <p>3,000,000</p> <p>3,500,000</p> <p>4,000,000</p> <p>4,500,000</p> <p>5,000,000</p>